

화재발생으로

2만 4천수 병아리 떼죽음

— 열풍기사고, 사용자부주의 공방전 —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양계농장 특히, 육계농장에 열풍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가평분회를 중심으로 한 육계농장에는 이번에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W열풍기 70여대가 보급된 상태이고 올해만 해도 3건의 화재가 같은 이 회사제품이 들어간 농장에서 발생하여 회원들과 열풍기회사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저녁 8시 55분경 경기도 설악면 위곡리에서 3만2천수 규모로 양계업을 하고있는 김윤행씨 농장에 6일령된 2만4천수의 병아리가 계사와 함께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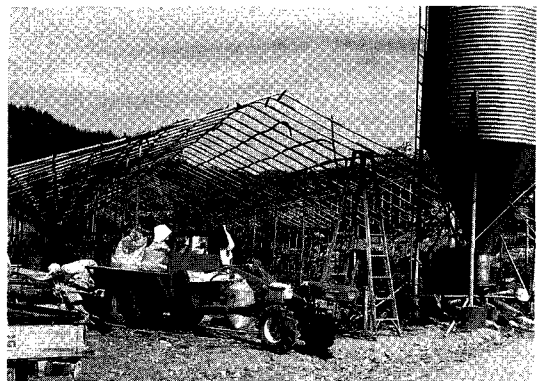
김씨에 따르면 지난 6월 병아리 입추시 열풍기에 이상이 생겨 회사측에 수리를 요구했

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하고 타열풍기로 사용을 하다가 4개월 후인 지난 10월 10일 열풍기사에서 A/S를 해주어 당일 7시부터 작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던중 갑자기 전기불이 꺾뻑하는 현상이 발생, 아차싶어 계사로 나가본 순간 열풍기 자리에서 불길기 치솟으며 10분도 채 앓돼 옆계사까지 불길이 옮겨붙어 완전히 전소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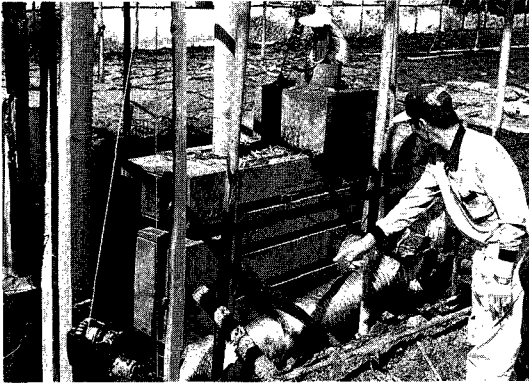
농가측에서는 작년과 올해 신축한 계사 두개동이 전소되어 피해액만 해도 6천여만원이 되는데 열풍기 주위에는 폐사된 병아리가 발견되지 않고 반대

쪽으로 병아리들이 집단폐사된 점으로 미루어 발화지점이 열풍기이며 사고원인은 열풍기의 과열(버너에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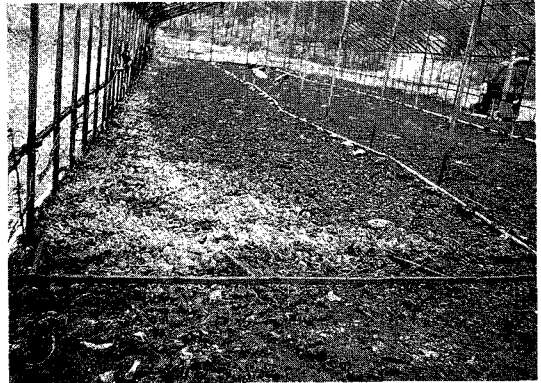
이 열풍기는 '93년 처음 구입할 당시에도 매연이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타열풍기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간간히 수리를 해가며 사용하였다 한다.



△두개동에서 2만4천수의 병아리가 몰사한 화재현장



△발화지점으로 추측되는 열풍기를 가리키는 농장주 김윤행씨



△지난 5월 같은 열풍기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
는 홍승관씨 농장 (당시 촬영한 사진)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 1,480여대의 열풍기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화재발생은 7건이 발생(입추전 4건, 전기누전 1건, 미결 2건)되었는데 열풍기에 의한 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기계자체가 화재의 위험성이 전혀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열풍기 과열이 아닌 다른 원인(전기누전,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사후처리 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그후 발생한 일은 회사측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홍승관씨 농장의 경우에도 열풍기 회사측에서 A/S를 하고간 당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16일령된 15,500수의 육계를 몰살시키는 어처

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 전체를 살펴볼때 열풍기에 의한 사고라는 심증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때도 회사측은 전기누전이라는 말로 일축을 하고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의정(가평육계분회장)씨 농장의 경우 열풍기에서 불길기 올라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여 겨우 피해를 모면한 적이 있다.

이 일이 벌어지고난 후 가평분회에서는 50여대의 소화기를 구입해 회원들에게 보급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의정 분회장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생산자만 억울하게 피해를 볼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보상문제를 떠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열풍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감식반에 의한 정확한 화재증명원이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시 출동했던 소방소에서 "열풍기 과열추정"이라는 화재 증명원이 나온 상태에 불과하고 열풍기사 자체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액 산정기준이 애매해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어 있어 자칫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振)